

9월 11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9월 11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美증시 닷새째 랠리 연 중최고..다우 0.84%↑	뉴욕 증시가 10일(현지시간) 닷새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연중최고치를 경신했음. 예상보다 좋게 발표된 고용지표와 기업들의 실적 전망 상향이 호재로 작용했음. 원유 수요 증가를 반영하며 국제 유가가 상승한 점도 주가 상승을 도왔음. 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전일대비 80.26포인트(0.84%) 상승한 9,627.48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3.63포인트(1.15%) 오른 2,084.02를,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는 10.77포인트(1.04%) 뛸 1,044.14를 각각 기록했음 뉴욕 증시는 장 초반까지만 해도 혼조세를 나타냈음. 개장 전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청구가 월가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발표됐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가격 부담이 작용했음. 증시는 전일까지 4거래일 연속 상승해 왔음. 이로 인해 S&P500 지수의 주가이익비율(PER)은 19배를 기록, 지난 2004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음. 아울러 세계 최대 종자업체 몬산토가 내년 순이익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한 점도 경기에 대한 우려를 높였음. 그러나 원유 재고 감소 소식과 석유 수요 증가 전망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유가가 반등, 증시는 상승세로 방향을 잡았음. 또 프록터앤갬블(P&G)의 실적 전망 상향은 몬산토의 실적 악화 전망을 상쇄하며 투자심리를 호전시켰음. 여기에 헬스케어주와 금융주가 상승세에 동참하면서 증시는 마감 2시간을 앞두고 상승폭을 점차 확대했음. 결국 이날 증시에서는 다우 지수를 구성하는 30개 종목 가운데 21개가 상승했고, 9개가 하락했음.
유가, 수요 전망 상향 에 나흘째 상승	국제 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소식과 글로벌 원유 수요 증가 전망에 힘입어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갔음. 뉴욕상품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0월 인도분 가격은 전일대비 배럴당 84센트(1.2%) 상승한 72.15달러로 마감했음. 이로써 유가는 최근 4거래일 동안 6% 이상 상승했음. 미 에너지정보국(EIA)은 지난주(4일 마감 기준) 원유 재고가 590만배럴 감소했다고 밝혔음. 전망치인 150만배럴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것임. 또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미국과 아시아의 석유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올해와 내년 전세계 원유 수요 전망을 상향 조정했음. IEA는 전세계 원유 소비량이 올해 하루 평균 8,440만배럴, 내년 8,570만 배럴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음. 이는 기존 추정치보다 하루 50만배럴 이상 늘어난 규모임.

제목	주요 내용
실업수당청구 5개월만에 최저	노동부는 미국의 지난주(5일 마감 기준) 신규 실업수당청구 건수가 55만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주보다 2만 6,000건 줄어든 규모로, 7월 중순 이후 가장 적은 숫자임.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의 예상치는 56만건이었음. 변동성을 줄인 4주 평균치는 전주 57만 2,750건에서 57만건으로 감소했음. 특히 연속 신청 건수(8월29일 기준)는 15만 9,000건 감소한 609만건을 기록, 4월 초 이후 5개월만에 가장 적었음.
日 민주당, 이달중 내년 예산수정 착수	일본 집권당인 민주당이 연말 최종 완료를 목표로 이달 중 내년 예산안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 민주당은 그동안 10월초쯤 예산 관련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올해 안에 예산안 수정을 마치기 위해 이달 중 기본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음. 내년 회계연도 예산안 마련은 이미 현 정부 하에서 착수되면서 각 정부 부서와 공사들이 이미 관련 목록을 제출한 상태. 그러나 하토야마 유키오 총재가 이끄는 민주당이 내주 새롭게 집권함에 따라 재무부의 기존 예산안을 폐기하고 민주당 정책 의제에 따라 자금을 재배치할 계획.
한은 총재 "금리인상해도 금융완화 상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의 금융완화 상태가 (경제여건에 비해) 상당히 강도가 강하다"고 밝히며 금리인상에 대한 의지를 밝혔음. 그러나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실물경기가 충분히 살아난 것도 아니고 국제경제 환경이 현저히 좋아진 것도 아니다"라며 신중하게 접근할 것임을 시사. 이성태 총재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이 완화기조냐 긴축기조냐 하는 것은 금리의 방향만 가지고 말할 수 없다"며 "일부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금융완화를 유지하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고 말했음.
삼성전자 "샤프 특허소송, 美 수출영향 없을 것"	삼성전자 관계자는 10일 "샤프와의 특허소송 최종판결은 오는 11월로 예상하고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 미국 수출 금지 여부를 논하는 것 자체는 무의미하다"고 설명. 이어 "만일 삼성전자가 샤프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결론나더라도 해당 특허에 대한 회피설계를 통해 이를 피해갈 수 있다"고 강조. 이와관련 블룸버그는 이날 삼성전자가 샤프와의 소송에서 패할 경우 LCD TV와 PC 모니터 등의 미국수출이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 삼성전자와 샤프는 지난 2007년부터 LCD패널과 관련 상대방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